

2020년 9월 10일(목)

13: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권나미 활동가 (02-6382-0999)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 인간은 배우, 동물은 소품?

### 카라, 촬영현장의 동물 복지 실태 조사

- 157명의 영화·방송·뉴미디어 종사자가 참여한 촬영 현장의 동물복지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해를 가했다 8%, 촬영 중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쳤다 13%, 출연 동물로 인해 인간이 다쳤다 8%로 나타나...

- '출연 동물의 엄격한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 및 스태프를 위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필요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 영화, 방송, 뉴미디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미디어 종사자 157명이 참여했다. 동물이 출연하는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한 경험자는 61%인 95명이었다.

○ 이번 설문조사는 ▲동물 섭외 경험 ▲동물 배우 복지 현황 ▲촬영 현장 내 동물학대와 동물권 침해 제보 ▲개선방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 조사에 따르면 동물 배우를 섭외한 경로는 '동물 촬영 전문 업체에서 대여'가 응답자의 44%, '스태프 또는 지인의 반려동물 섭외'는 25%였으며, 동물 배우를 선정한 기준으로 '동물의 전문성' 즉 동물의 경력과 훈련 정도가 36%로 가장 높았다.

○ 동물 촬영을 위해 '구매했거나 포획한' 동물의 처리 현황을 묻는 질문에 '입양을 보냈다'는 답변이 22%, '업체에 되팔았다'는 답변이 16%, '모른다' 8%, '폐사(사망)했다'는 답변이 3%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촬영 이후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말은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류,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경우 폐사나 방사, 재판대로 후속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 촬영 현장에서 동물 배우의 복지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동물의 건강, 주변 환경, 안전과 스트레스 노출 상태 등을 물었다. 촬영 현장의 건강유지, 주변 환경, 안전 상태는 대체로 좋았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동물의 스트레스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변이 59%

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동물 촬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가 가이드라인 없이 동물 촬영이 진행되었다고 답했고, 촬영 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촬영 현장 근처 동물병원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답변은 20%뿐이었다. 또한 동물 출연을 대체할 CG(컴퓨터그래픽)로 장면 연출을 고려한 적이 41%는 '있다', 58%는 '없다'고 답했다. CG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산 부족'(41%)과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이라서'(33%)가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났다.

○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해를 가했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자의 8%가 '있다'고 답했고,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3%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 참여자는 "새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촬영 중 놀란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토끼 촬영 중 추위와 담당자 관리 소홀로 죽었다" 등 고의성과 상관없이 촬영으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했다. 또한, 출연 동물로 인해 인간이 다친 적도 참여자의 8%가 '있다'고 답변했다.

○ 미디어 종사자들은 촬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출연 동물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이 33%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스태프 대상 동물권 교육 의무화'(23%), '동물배우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1%)가 그 뒤를 이었다. 설문 참여자는 "인간은 배우로, 동물은 소품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0년 전 촬영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다만, 개인들의 인식이 좋아졌을 뿐 시스템상으로 보호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 본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동물과 인간이 안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일환이며, 10월 말에 열리는 카라동물영화제에서 출연 동물의 복지 현황과 개선방안을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일반 시민 및 촬영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http://www.ekara.org) 상단 배너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 참고자료

1.	도표	출연 동물 섭외 경로
2.	도표	동물 촬영 전문 업체 선정기준
3.	도표	구매했거나 포획한 동물 촬영 후 처리 현황
4.	도표	촬영 기간 동물의 건강 상태
5.	도표	촬영 현장 동물의 주변 환경 상태
6.	도표	촬영 현장 동물의 안전 상태
7.	도표	촬영 현장 동물의 스트레스 상태
8.	도표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있었나?
9.	도표	동물 관련 스태프 준비 정도
10.	도표	동물 출연 대신 CG(컴퓨터 그래픽 구현) 고려했는가?
11.	도표	CG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
12.	도표	동물 촬영 현장 사고 경험
13.	도표	국내 촬영현장에서 출연 동물의 환경에 대한 의견
14.	도표	국내 촬영현장에서 출연 동물의 안전에 대한 의견
15.	도표	국내 촬영현장에서 동물 촬영 시 인간의 안전에 대한 의견
16.	도표	출연 동물 적정 촬영 시간에 대한 의견

17	도표	동물 안전을 위한 필요 요소
18	도표	촬영으로 동물 사망 혹은 상해 시 대처 방안
19	도표	출연 동물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20	도표	설문 참여자 활동분야
21	도표	설문 참여자 활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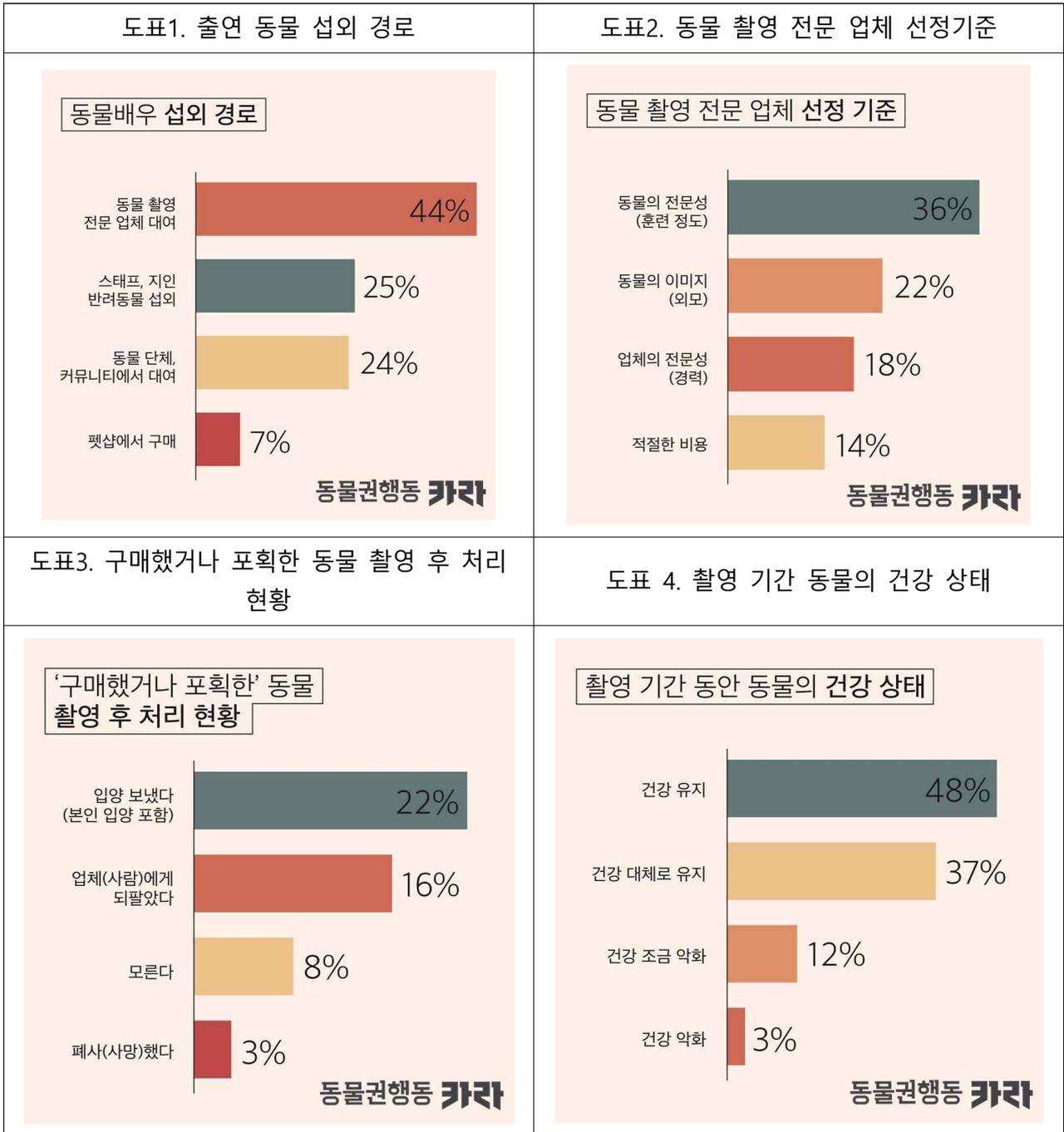


도표5. 촬영 현장 동물의 주변 환경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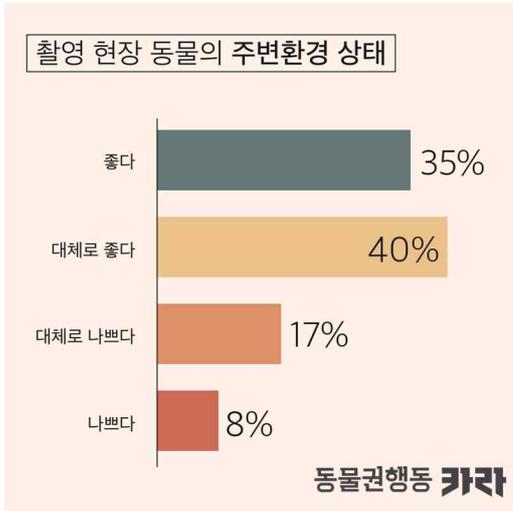


도표6. 촬영 현장 동물의 안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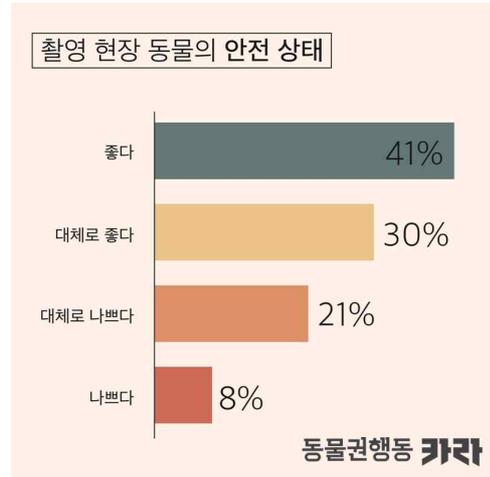


도표7. 촬영 현장 동물의 스트레스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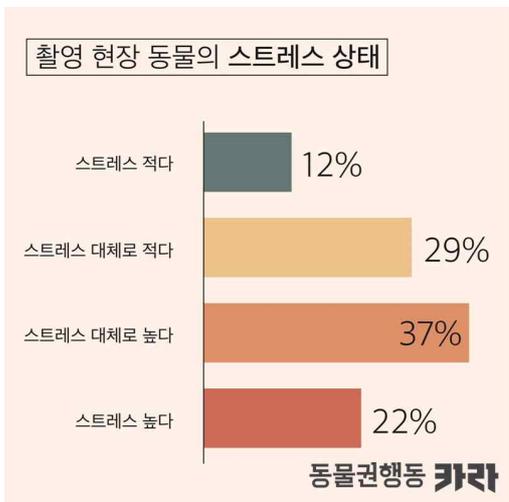


도표 8.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있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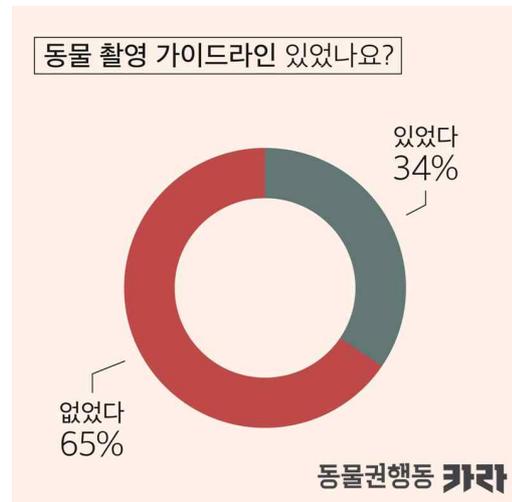


도표9. 동물 관련 스태프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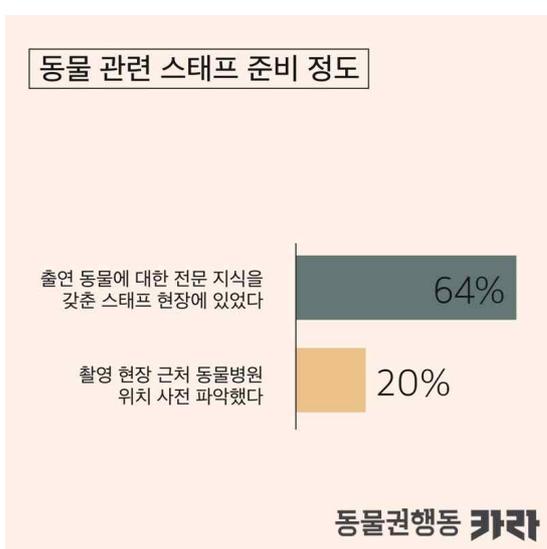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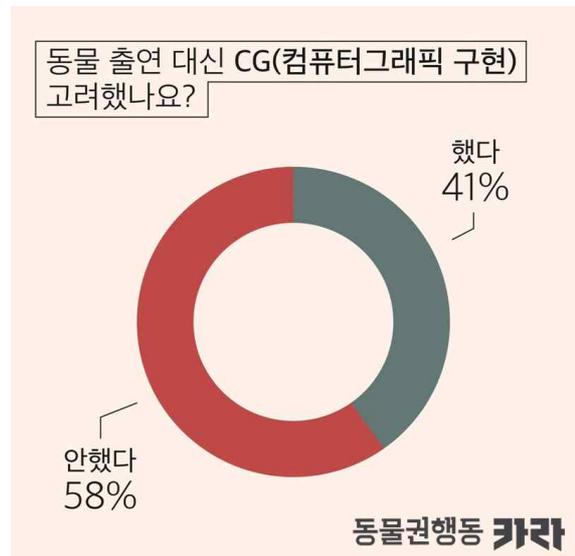


도표 10. 동물 출연 대신 CG(컴퓨터 그래픽 구현) 구현) 고려했는가?



<p>도표11. CG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p> <p>CG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p> <table border="1"> <tr><td>예산 부족</td><td>41%</td></tr> <tr><td>컴퓨터그래픽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td><td>33%</td></tr> <tr><td>동물출연 익숙해서</td><td>8%</td></tr> <tr><td>시간 부족</td><td>6%</td></tr> </table> <p>동물권행동 카라</p>	예산 부족	41%	컴퓨터그래픽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	33%	동물출연 익숙해서	8%	시간 부족	6%	<p>도표12. 동물 촬영 현장 사고 경험</p> <p>동물 촬영 현장 사고 경험</p> <table border="1"> <tr><td>촬영 시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td><td>8%</td></tr> <tr><td>촬영 시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td><td>13%</td></tr> <tr><td>촬영 시 동물이 인간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td><td>8%</td></tr> </table> <p>동물권행동 카라</p>	촬영 시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	8%	촬영 시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	13%	촬영 시 동물이 인간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8%		
예산 부족	41%																
컴퓨터그래픽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	33%																
동물출연 익숙해서	8%																
시간 부족	6%																
촬영 시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	8%																
촬영 시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	13%																
촬영 시 동물이 인간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8%																
<p>도표13. 국내 촬영현장에서 출연 동물의 환경에 대한 의견</p> <p>국내 촬영현장에서 출연 동물의 환경에 대한 의견</p> <table border="1"> <tr><td>좋다</td><td>2%</td></tr> <tr><td>대체로 좋다</td><td>29%</td></tr> <tr><td>대체로 나쁘다</td><td>47%</td></tr> <tr><td>나쁘다</td><td>22%</td></tr> </table> <p>동물권행동 카라</p>	좋다	2%	대체로 좋다	29%	대체로 나쁘다	47%	나쁘다	22%	<p>도표14. 국내 촬영현장에서 출연 동물의 안전에 대한 의견</p> <p>국내 촬영현장에서 출연 동물의 안전에 대한 의견</p> <table border="1"> <tr><td>안전하다</td><td>4%</td></tr> <tr><td>대체로 안전하다</td><td>35%</td></tr> <tr><td>대체로 위험하다</td><td>43%</td></tr> <tr><td>위험하다</td><td>18%</td></tr> </table> <p>동물권행동 카라</p>	안전하다	4%	대체로 안전하다	35%	대체로 위험하다	43%	위험하다	18%
좋다	2%																
대체로 좋다	29%																
대체로 나쁘다	47%																
나쁘다	22%																
안전하다	4%																
대체로 안전하다	35%																
대체로 위험하다	43%																
위험하다	18%																
<p>도표15. 국내 촬영현장에서 동물 촬영 시 인간의 안전에 대한 의견</p> <p>국내 촬영현장에서 동물 촬영 시 인간의 안전에 대한 의견</p> <table border="1"> <tr><td>안전하다</td><td>10%</td></tr> <tr><td>대체로 안전하다</td><td>55%</td></tr> <tr><td>대체로 위험하다</td><td>29%</td></tr> <tr><td>위험하다</td><td>6%</td></tr> </table> <p>동물권행동 카라</p>	안전하다	10%	대체로 안전하다	55%	대체로 위험하다	29%	위험하다	6%	<p>도표16. 출연 동물 적정 촬영 시간에 대한 의견</p> <p>출연 동물 적정 촬영 시간에 대한 의견</p> <table border="1"> <tr><td>4시간 미만</td><td>64%</td></tr> <tr><td>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td><td>35%</td></tr> <tr><td>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td><td>8%</td></tr> </table> <p>동물권행동 카라</p>	4시간 미만	64%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5%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8%		
안전하다	10%																
대체로 안전하다	55%																
대체로 위험하다	29%																
위험하다	6%																
4시간 미만	64%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5%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8%																

도표17. 동물 안전을 위한 필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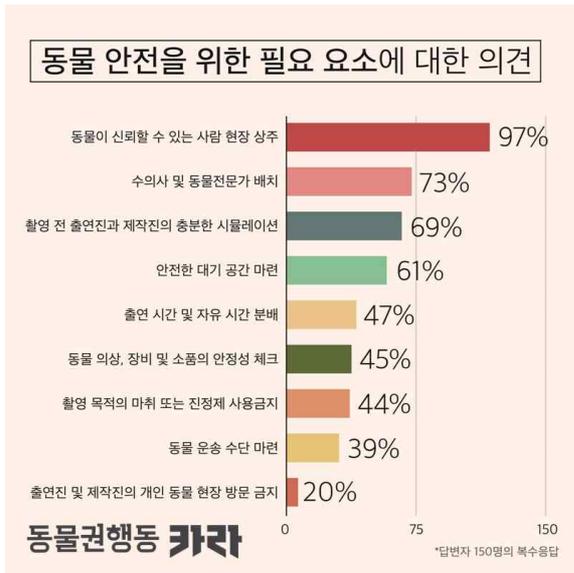


도표18. 촬영으로 동물 사망 혹은 상해 시 대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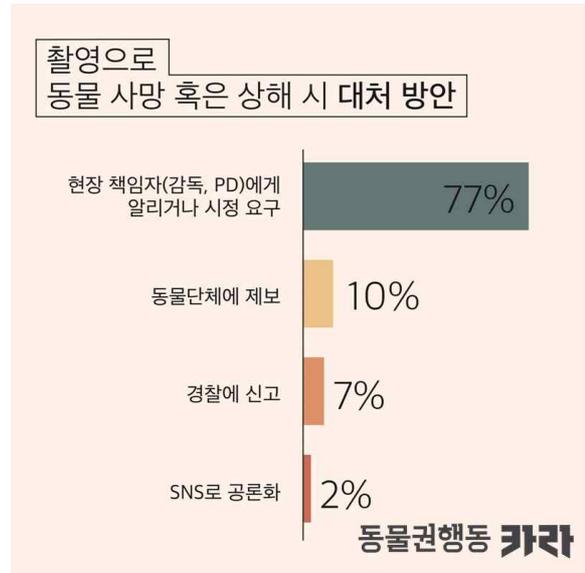


도표 19. 출연 동물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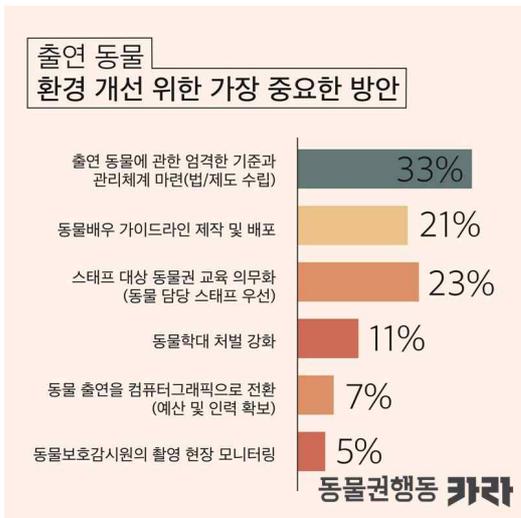


도표 20. 설문 참여자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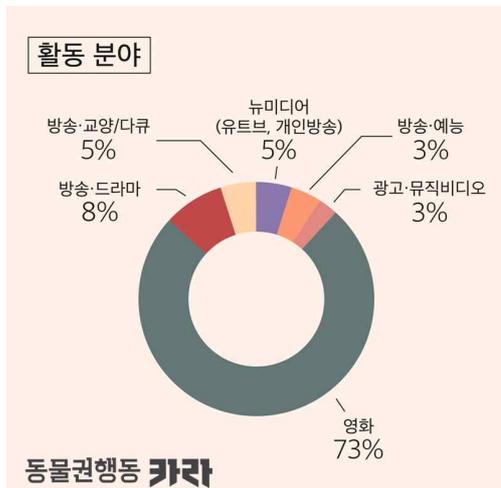


도표 21. 설문 참여자 활동기간

